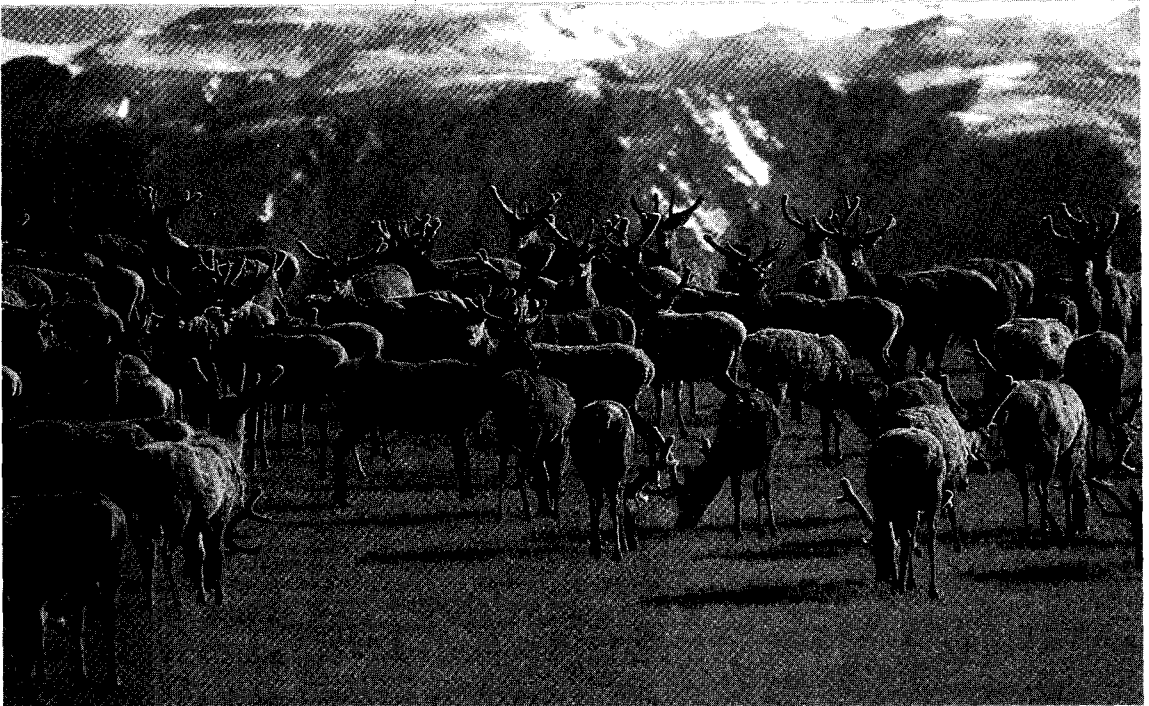


올 해 사슴수입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슴수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노성보씨가 호주에서 레드디어 4백50두를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유보했다고 밝혔다.

사슴을 수입할 경우 「수입동물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요령」에 의거 6개월전에 서류를 구비하여 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해야 하나 5월11일 현재 한 건도 없어 이번이 없는 한 올해 사슴수입은 없을 것으로 단정되고 있다.

따라서 2년 연속 사슴수입이 없는 전기를 맞게돼 사슴가격도 서서히 IMF관리체제 이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유통인의 경우 올해 수입되지도 않은 레드디어가 이미 수입되었고, 엘크도 곧 수입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려 사슴값 상승을 누그러 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록농가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유도하여 사슴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이들의 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슴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협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사슴수입 실태를 파악하여 회보 「한국양록」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